

북한영화 <평양 날파람> 연구

한승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북한정치 전공

korng1010@hanmail.net

I. 서론

II. 영웅적 삶과 조선민족제일주의

III. 선군혁명의 기초와 강성대국의 길

IV. 결론

I. 서론

북한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한 <평양 날파람>¹⁾이 2006년 8월 1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시사회²⁾를 가졌다. <평양 날파람>은 2006년 북한 관객 600만 명이 볼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고 북한에서는 실효모임까지 진행된 영화이다. 이 영화가 북한 관객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영화 제작방식이나 주제의식에서 기존 사고방식을 탈피해 새로운 안목과 열정 그리고 기발한 착상 등 “참다운 새 것을 창조하는 기풍”에 따라 제작³⁾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주민들은 <평양 날파람>에 나타난 변화된 연출과 박진감 넘치는 액션으로 인해 흥미와 관심을 보였고 <평양 날파람>은 2006년 북한에서 화제의 영화가 되었던 것이다.⁴⁾

<평양 날파람>은 지난 세기 초 일제에 의하여 강요된 한일합병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화는 조선의 국보급 무술도서인 ‘무예도보통지’를 강탈하려는 일본 사무라이들과 싸워 민족의 녀인 ‘무예도보통지’를 지키려는 평양 택견꾼들의 모습을 그렸다. 그러나 <평양 날파람>은 기존 북한 액션영화에서 보였던 형식을 탈피하였다는 특징이 있다.⁵⁾ 기존과 다르게 제작된 <평양 날파람>은 사건의 줄거리를 함축과 비약, 섬세한 세부묘사 수법으로 형상하여 박진감 넘치게 보여줌으로써 관람자들이 긴장감을 갖고 영화에 매료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북한주민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교양적 의의가 큰 <평양 날파람>은 시사회 관객들을 격동시켰⁶⁾던 것이다.

1) 예술영화 <평양 날파람>은 인민문화궁전, 락원영화관, 선교영화관, 동대원영화관, 락랑영화관, 통일거리영화관에서 개봉되었고 평양국제영화회관, 대동문영화관, 개선영화관에서도 개봉되었다. 《로동신문》, 2006년 8월 14일자.

2) 《로동신문》, 2006년 8월 11일자.

3) 《조선신보》, 2006년 8월 16일자.

4) 2005년 북한은 조국해방 60주년, 로동당 창건 60주년의 해였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해이기도 하다. 그러나 2006년 5월 북한은 배급제를 정상화 하였고 10월에는 핵실험을 함으로써 체제결속을 다지는데 일정부분 성공하였다. 이에 북한은 고조된 분위기에 발맞추어 개봉될 신선한 영화가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2006년 선군시대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영화 <평양 날파람>과 <한 녀학생의 일기>를 제작한 것이다.

5) 북한에서 고전을 영화로 제작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1986년 제작된 <홍길동>이 있으며 이 영화는 개봉 당시 북한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홍길동>은 동일한 액션을 반복적으로 보여 주어 조금 단조로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평양 날파람>은 다양한 액션을 보여줌으로써 <홍길동>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북한에서 〈평양 날파람〉을 관람한 사람들은 이 영화가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북한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감동 깊게 안겨주었다⁷⁾면서 흥분된 감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즉 〈평양 날파람〉은 한마디로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종자⁸⁾로 민족(김일성 민족)의 강한 애국심 그리고 ‘총대’를 강조한 북한의 예술영화라 하겠다.

북한은 〈평양 날파람〉을 통하여 민족의 뉘를 지키고 대를 두고 맺힌 피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잡아야한다⁹⁾는 사상교양적 메시지를 북한주민들에게 주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라는 적을 통하여 현재 북한이 당면한 문제인 경제난과 식량난 등의 문제를 회색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인 것이다. 게다가 북한은 2006년 배급제를 부활시켰고 핵 실험을 단행하하면서 북한 사회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었다. 따라서 북한은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평양 날파람〉 제작에 있어서 시각적으로 신선함을 주면서¹⁰⁾ 기존 영화들과 차별화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북한 관객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체제결속을 다지는데 있어서도 효과적이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평양 날파람〉에 나타나는 주인공 ‘택’과 ‘건’의 애국정신과 북한에서 말하는 조선민족 역사 강조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선군시대 걸작이라고 한 〈평양 날파람〉을 통해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북한영화의 본질이 변화하였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6) 《로동신문》, 2006년 8월 11일자.

7) 《로동신문》, 2006년 8월 14일자.

8) 종자는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가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이다. 서재경, 『주체의 문학창작』 (문학예술출판사, 2007), 6쪽.

9) 《로동신문》, 2006년 8월 16일자.

10) 지금까지 북한영화는 페이드, 디졸브 등의 광학편집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줌이나 컷에 의해서만 쇼트전환을 하기 때문에 화면이 TV드라마처럼 단조롭다는 인상을 주었다. 또한, 컷이 많은 경우에도 그것이 감정 강조를 위해 삽입된 클로즈업이어서 마치 1920년대 소련영화에서와 같이 컷은 많으나 진행이 느린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김정일 시기에 제작되는 북한영화는 편집속도와 이야기 진행이 상당히 빨라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적 변화를 하고 있다. 이명자, 「김정일시기 영화 창작방법에서의 수동적 혁명: 가족영화의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영화연구』18호(2002), 195-196쪽.

II. 영웅적 삶과 조선민족제일주의

1. ‘택’¹¹⁾과 ‘견’¹²⁾의 애국과 영웅적 삶

북한은 영화제작에 있어서 “관객에게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내용과 형식을 인상 깊게 재구성하는 것은 연출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다”¹³⁾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야 관객으로부터 흥미를 끌 수 있기 때문¹⁴⁾에 북한에서는 영화의 첫 장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평양 날파람>은 도입부터 신선하다. 영화는 밤 10시를 알리는 시계소리가 울릴 때, ‘고진태’라는 해외 학자가 ‘무예도보통지’를 찾으러 평양 인민대학습당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된다. 그 다음 영화의 화면은 원을 그리며 없어지고 제명 <평양 날파람>이 나옴과 동시에 구한말의 모습을 관객에게 보인다. 즉 <평양 날파람>은 시작부터 ‘무예도보통지’가 무엇인지를, 해외 학자는 왜 늦은 시각에 ‘무예도보통지’를 찾으러 왔는지를 관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관객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유발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연출가는 이렇게 조성된 감정의 흐름을 재빨리 영화의 본 흐름으로 진입시키는 방법으로 감정을 새롭게 조성하고 있다. 북한에서 이 방법은 영화에서 관객의 관심을 놓치지 않고 작품이 말하려는 기본문제에로 관객의 흥미를 집중시켜나가는데 효과적¹⁵⁾이라며 적극 권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출가는 흥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연출 방법을 <평양 날파람>에 도입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유발된 궁금증에 대해서 연출가는 다음 장면인 노승과 주인공 ‘택’과의 대화를 통하여 관객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¹⁶⁾ 즉 연출가는 ‘무예도보통지’의 중요성을 ‘노승’이 ‘택’에게 강조하는 장면을 통하여

11) ‘제2의 홍길동’이라고 찬사를 받는 리룡훈은 예술영화 ‘피묻은 락패’에 출연한 신인배우이다. 《민주조선》, 2006년 8월 13일자.

12) ‘견’의 역을 맡은 배우는 예술영화 ‘청자의 닻’과 드라마 ‘왕재산’ 등에서 연기를 한 신인배우 김혜경이다. 《민주조선》, 2006년 8월 13일자.

13) 한승남, 『연출가의 영화적 재구성』(문학예술출판사, 2008), 70쪽.

14) 위의 책, 70쪽.

15) 위의 책, 71쪽.

16) 노승이 주인공 ‘택’에게 ‘무예도보통지’가 고구려의 권법과 고려의 비천술, 서산, 사명당 대사의 승권법을 한데 모은 조선 무예의 뿌리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관객의 궁금증은 해소가 된다.

‘무에도보통지’의 중요성을 관객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후, 영화는 조선의 낯인 ‘무에도보통지’를 강탈하려는 일본의 만행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다. 더욱이 동굴 앞에서의 평양 날과람꾼들과 일제의 대결장면, ‘견과 ‘미에꼬’의 대결 장면 그리고 일제의 무력 앞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택’과 ‘견’의 모습을 통하여 영화는 관객들에게 진정한 애국주의가 무엇이고 애국주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연출가는 이러한 애국심¹⁷⁾을 〈평양 날과람〉의 주인공 ‘택’과 ‘견’의 인물형상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관객에게 주인공 ‘택’과 ‘견’의 애국주의와 애국의 낯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주인공 ‘택’은 정의감이 강하고 의지가 굳센 조선청년의 모습으로 화면에 등장한다. 영화는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조선의 정통무도 택건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온갖 책동을 집중 부각시킴과 동시에 주인공 ‘택’을 단순히 복수자로서 만이 아니라 민족의 낯을 피로서 지키는 애국청년으로 묘사하고 있다. 영화에 묘사된 그의 이러한 애국심과 영웅적 모습은 관객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호소력 있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이다.¹⁸⁾

또 다른 주인공 ‘견’에 대해서 관객은 로동신문 인터뷰를 통하여 “일제가 꾸며낸 ‘가짜 비서 사건’을 둘러싸고 일본 사무라이들을 통쾌하게 끌어눕히는 격투장면들에서 관객들은 민족의 낯을 지키는 길에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치는 여 주인공 ‘견’의 장한 모습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¹⁹⁾고 밝히고 있다. 연출가는 이렇게 주인공 ‘택’과 ‘견’의 애국주의와 영웅적인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줌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북한체제 결속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03년 로동신문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 과정에서 총대 영웅, 건설자 영웅, 지식인 영웅 등 수많은 영웅이 배출되었다”면서

17) 북한은 “애국심이란 각성된 선각자나 혁명가의 심장에만 있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다. 자기 것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감정, 그것이 침해당하고 그로부터 끊어오르는 격렬한 사랑과 증오가 민족의 운명과 결부되어 승화되면 그것은 마침내 애국의 정신 혹은 애국적 행동으로 분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동신문》, 2006년 9월 25일자.

18) 영화를 관람한 북한주민은 “죽더라도 굽힐 줄 모르는 불굴의 애국정신, 불의를 용서치 않고 민족의 낯을 지키는 길에서는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줄 아는 이 땅의 수많은 조선의 열혈 청년들의 모습도 함께 그려보게 된다”고 밝히고 있다. 《로동신문》, 2006년 8월 17일자.

19) 《로동신문》, 2006년 8월 17일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시대 영웅들처럼 선군사상의 절대적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찰자가 될 것”을 강조하였다.²⁰⁾ 이렇게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애국주의와 영웅적 삶은 어려움에 처한 북한 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기에 많은 한계가 있지만, 체제를 결속하는 측면에서는 의의 있는 정치적 행동이라 하겠다.

실제 〈평양 날파람〉을 관람한 관객은 “영화를 통해 유구한 세월 속에 뿌리를 둔 태권도의 시원과 발전사를 생동하게 알게 되었으며 ‘무에도보 통지와 같은 국보를 가진 궁지와 우리 무술의 위력을 새삼스레 느꼈고 이 나라의 귀중한 재보와 민족무술을 지켜 싸운 택견꾼들의 애국적 장거에 대해 단편적으로나마 헤아릴 수 있었다”²¹⁾고 로동신문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관객 인터뷰에 나타나듯이, 외세에 의해 나라를 잃은 비운의 전후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주인공들의 운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비극적인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은 비극보다도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사회에서 조장하고 있는 애국주의 문화와 영웅적 삶을 강조하는 문화 그리고 영화 속 주인공 ‘택’과 ‘견’의 사실적인 영웅 형상화 등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결국, 이렇게 북한주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작된 〈평양 날파람〉은 북한주민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빠른 이야기 전개와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뒷받침 된 〈평양 날파람〉은 북한주민들에게 당의 요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 날파람〉을 선군시대²²⁾의 대표적인 영화로 칭하고 영화 제작에 있어서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20) 《로동신문》, 2003년 11월 5일자.

21) 심영택, 『조선예술』 제12호(문학예술출판사, 2006), 14쪽.

22) 김정일 시대의 선군정치는 정치군사적 목적과 더불어 경제건설에 대한 군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혁명적 군인정신’ ‘영웅적 희생정신’ 등을 모든 북한주민들이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시대 북한은 군과 관련된 용어나 행태가 사회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승호, 「김정일 시대 선군정치의 당·군 관계」, 《북한》, 2008년 8월호, 105-112쪽.

2. 조선민족제일주의²³⁾의 의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평양 날과람〉²⁴⁾은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을 종자로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중심으로 민족의 강한 애국심을 그렸다. 그러나 〈평양 날과람〉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이 남한사회에서 이해하는 조선민족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에서의 민족인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 사회과학원 원사 교수 박사 허종호는 〈평양 날과람〉을 보고 로동신문을 통해 “나는 력사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며 김일성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겠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로동신문에서는 〈평양 날과람〉을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수령과 영도자를 높이 모신 민족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더욱 소중히 간직하게 하며 김일성 민족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존엄하고 긍지 높은 인민이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보여주고 있다”²⁵⁾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평양 날과람〉에서 말하는 조선민족은 남한에서 이해하는 조선민족의 개념이 아닌 김일성 민족을 뜻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영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영화적 측면만 고려하고 분석하면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북한영화를 올바르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 대한 이해²⁶⁾와 영화제작 방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23) 북한은 “조선민족제일주의는 단순히 현명한 민족적수령을 모신 긍지와 자부심이 아니라 자주시대를 개척하시고 이끌어 오신 20세기의 태양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을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 21세기의 위대한 태양 김정일영도자를 모신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인 것으로 하여 자기 민족제일주의의 최고전형으로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김현환, 『김정일장군 조선민족제일주의론』(평양출판사, 2003), 77-78쪽.

24) 〈평양 날과람〉은 ‘인민보안성 정치대학’과 ‘조선 태권도 위원회’가 후원하였고 김일성 훈장을 수여받은 ‘조선예술영화촬영소’에서 제작하였다.

25) 《로동신문》, 2006년 9월 25일자.

26) 북한은 조선대백과사전을 통하여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안 영화반을 시작으로 영화제작을 하다가 1947년 2월 6일 국립영화촬영소로 창립되었다. 이후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당에 무한히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적영화예술인창조집단으로 성장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즉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당의 하부 조직으로서 당의 지휘를 받는 기관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영화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영화 속에 나타나는 당의 의도를 찾아 분석하는 것은 결국, 북한의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라 하겠다.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19(백과사전출판사, 2000), 140-142쪽.

북한에서는 “예술영화를 비롯한 모든 영화제작은 작가들이 당 정책의 요구에 맞는 종자를 잡고 이를 토대로 영화 제작”²⁷⁾을 하고 있다. 이는 〈평양 날파람〉에도 예외없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번 〈평양 날파람〉 영화문학창작과정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민족애와 문학예술의 거장인 우리 장군님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다시한번 절감하게 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체험이 있었기에 작품에서 민족의 녀이 맥박치는 개성적인 성격형상을 창조할수 있었고 우리 당의 위대한 선군정치가 있어 민족의 전통과 력사도 빛난다는 커다란 사회적문제를 밝혀낼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여 우리 민족사는 영원히 뿌리며 길이 전해질 것이다.²⁸⁾

이렇게 북한에서 제작되는 모든 영화는 당 정책에 철저히 의거²⁹⁾하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북한영화를 자본주의에서 이해하는 영화처럼 작가적 상상력이나 창작의도에 중심을 두고 영화를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북한영화 본질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된다.³⁰⁾

2006년 북한에서 집중 조명 받았던 예술영화인 〈평양 날파람〉은 일제의 조선강점 첫 시기 평양 택견꾼들이 민족의 녀을 지켜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영화는 관객에게 민족무도인 태권도의 고향이 평양이라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매 장면마다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강조하고 있다.³¹⁾ 즉 북한은 영화를 통하여 조선민족으로 태어난 사람은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언급하고 있는 단어 ‘조선의 녀’의 의미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³²⁾ 조선의 녀이란 “우리 민족이 모신 우리 수령이

27) 김정일, 『김정일선집』2(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37쪽.

28) 《로동신문》, 2006년 8월 15일자.

29) 영화에 당정책적선을 확고히 세우고 그에 의거한다는 것은 영화의 내용을 불멸의 주제 사상이 구현된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으로 일관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예술형상창조의 전과정을 주제적문예사상과 리론의 요구대로 해나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송남, 앞의 책(2008), 47-48쪽.

30) 북한영화는 당의 철저한 검열을 받고 당의 요구 및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영화에 있어서 작가의 의도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승호, 「북한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 연구」, 『영화』 제2권 2호(2009), 204-210쪽.

31) 리호윤, 『조선예술』 제1호(문학예술출판사, 2007), 11쪽.

32) 북한영화 연구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할 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언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나 이다. 북한이 영화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잘못된 영화분석을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6.15공동선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북한의 언어를 무비관적으로 받아들인 경험이 이미 있다. 6.15공동

제일이고 우리 당이 제일이고 우리 인민이 제일이라는 조선민족제일주의 정신³³⁾을 뜻한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 날파람>을 통하여 체제 결속차원에서의 민족(김일성 민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영화를 통하여 북한주민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사상교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족생활을 북한주민이 이해하고 수궁할 수 있게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작금의 북한 현실은 '고난의 행군'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북한주민들에게 민족적자부심과 긍지를 북돋아주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사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민족생활묘사가 중요한 요구³⁴⁾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연출가는 어린 시절 '택'과 '견'이 그네를 함께 타는 생활 세부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그들의 애정세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민족생활의 일단을 영화에 형상화함으로써 관객으로 하여금 민족적 정서를 자아내려는 연출가의 의도인 것이다.

여러 계기에서 반복하여 보여준 옥가락지는 최후의 순간에 남주인공이 여주인공의 손가락에 끼워주는 장면에서 시각적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면서 옥가락지는 비극적인 장면을 보다 순결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고 있다. 즉 옥가락지를 통해 연출가는 두 인물의 사상감정과 내면세계를 강조³⁵⁾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평양 날파람>은 전통 기물을 통하여 관객에게 민족의 전통적 생활을 보여줌으로써 민족적 긍지를 심어주고 있다.

선언 제2항에서 '공통성'에 대한 의미는 남한과 북한이 다르고 남한의 '연합제'에 대한 북한의 실제적 해석은 분명히 다르다. 더욱이 6.15공동선언 제2항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이 연방제 방안에 합의 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남한은 "북한이 연방제 안에 해석한 것"으로 각각 달리 이해하고 있다. 결국 서로 언어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합의를 도출한 6.15공동선언은 결국 이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남북한 간 불신을 확대 재생산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북한영화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가 용어를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일 경우, 예를 들면 <평양 날파람>에서 북한이 말하는 '민족'을 한국사회에서 이해하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평양 날파람>을 해석할 경우 북한의 역사관과 한국의 역사관이 다를 바 없다는 잘못된 결론 도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이 영화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반드시 이해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강성윤,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합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2004), 33-51쪽.

33) 조성박, 『김정일 민족관』(평양출판사, 1999), 210-211쪽.

34) 서재경, 앞의 책(2007), 88쪽.

35) 최용석, 『조선예술』 제6호(문학예술출판사, 2007), 23쪽.

무술시합장을 묘사함에 있어서도 연출가는 조선식 합각지붕으로 된 고색 짙은 건물을 배경으로 보여줌으로써 민족의 용맹과 기상이 내려치는 듯한 감정과 일본 폭력단을 내려다보고 짓누르는 감정이 폭발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³⁶⁾ 이렇게 〈평양 날파람〉은 민족 생활묘사를 사실적으로 설명하면서 이를 토대로 ‘택’과 ‘건’의 애국주의 정신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동시에 영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애국주의 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의 중요성을 깨우쳐주고 고취시킴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키고 있다.³⁷⁾ 즉 북한은 영화를 통한 선전선동을 예나 지금이나 활용하고 있는 것이고 〈평양 날파람〉을 통해서도 사상교양을 하고 있으며 북한주민을 통제하고 체제 결속을 다지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III. 선군혁명의 기초와 강성대국의 길

1. 선군정치³⁸⁾: 군사중시사상

북한은 〈평양 날파람〉이 “선군시대에 높은 경지에 오른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내용과 형식에서 큰 전진을 이룩한 명작 영화”³⁹⁾라면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영화라고 칭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로동신문을 통해 “오늘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영화예술부문에서는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학과 연출, 촬영 등 영화

36) 위의 책, 23쪽.

37) 북한은 “오늘 우리 시대는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역사를 창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주체의 새 시대이다”라고 선전하고 있다. 동시에 “지난 날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역사의 새 시대, 주체시대는 그에 맞는 새로운 영화예술, 주체의 영화예술을 건설하고 창조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며 주체의 영화예술은 새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에 맞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화예술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술가들이 지속적인 혁신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리현순, 『사회주의영화예술건설』(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10쪽.

38) 선군정치의 시원에 대한 북한 최초의 설명은 1995년 1월 다박솔초소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점차 해석의 시기가 상향조정되면서 김정일이 1960년대 제108땅크사단을 방문한 날까지 소급되고 있다. 서유석, 「북한 『회상기』의 영웅서사 상징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제2호(2006), 215-216쪽.

39) 《로동신문》, 2006년 8월 15일자.

예술 전반에서 새로운 면모를 갖춘 예술영화 <평양 날파람>이 창작되었다”면서 “<평양 날파람>의 창작적 성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실이다”⁴⁰⁾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이 <평양 날파람>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영화라고 강조하는 것은, 기존 북한영화의 단조로운 형식을 탈피하고 북한주민의 요구수준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영화의 시각적 효과 때문이다.

<평양 날파람>은 한일합병 시기 전후를 배경으로 하면서 아무리 슬기롭고 용맹스러운 민족일지라도 군력이 약하면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관중에게 보여⁴¹⁾줌으로써 선군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평양 날파람>을 통해 북한은 일본을 원수로 규정하고 일본에 대한 관객의 감정을 증폭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가짜 견과 가짜비서사건’ 등 일본의 비열한 책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주민들에게 선군혁명 총진군을 고무·추동하고 있⁴²⁾는 것이라 하겠다.

실제 북한에서 당의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끊기우느냐 마느냐하는 우리 혁명의 엄혹성을 반영하여 전면적으로 펼쳐지게 되었다”⁴³⁾라고 하면서 선군정치는 무엇보다도 먼저 군사를 제일국사로 내세우는 정치방식⁴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밀려오는 검은 구름.
여기에 안겨오는 자막.
1920년 8월 22일.
날조된 문건에 새겨지는 자막.
일제의 강압으로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었다.
남문에 모여선 사람들.
나무도 몸부림친다. 비통함에 절명하는 청년.
안타까움에 눈물짓는 보갑.
절망속에 택이 마을쪽을 바라본다.
불길에 민족의 유산들을 치내는 왜놈들.⁴⁵⁾

이처럼 <평양 날파람>은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장면과 조선

40) 《로동신문》, 2006년 8월 15일자.

41) 《민주조선》, 2006년 8월 13일자.

42) 《로동신문》, 2006년 8월 19일자.

43)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당의 선군정치』(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7-8쪽.

44) 문학예술출판사 편, 『천리마』 제8호(문학예술출판사, 2009), 76쪽.

45) 김종석·조세혁, 『조선예술』 제11호(문학예술출판사, 2006), 72쪽.

의 문서들이 불에 타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나라와 군력의 중요성을 관객에게 각인시키고 있다. 즉 〈평양 날파람〉을 통해서 북한은 “군사의 강국은 사회주의 강성대국의 중요한 징표이며 군사력이 나라의 자주독립을 지키고 국력을 강화하는 확고한 담보가 되기 때문에 군사강국건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⁴⁶⁾는 진리를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연출가는 영화의 장면을 통하여 관객에게 선군정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즉 북한이 사상교양적 측면으로서 활용하는 영화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2. 총대중시

〈평양 날파람〉은 마지막 장면 ‘택’과 ‘건’의 죽음을 통하여 아무리 뛰어난 무예를 지닌 민족일지라도 군력이 약하면 식민지 노예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⁴⁷⁾을 관객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평양 날파람〉의 이러한 결말은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선군혁명의 기초이며 출발점”⁴⁸⁾이라는 북한의 총대중시와 군사중시를 영화에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렇게 영화에 반영된 북한의 의도는 영화를 통하여 북한주민에게 총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킴과 동시에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택: 이놈들아, 우리 택건의 용맹이 어떤것인지, 슬기가 어떤것인지,
단군민족의 기상이 어떤것인지 똑똑히들 보라 ... (중략)
얏-. 하며 조약하는 택.
기둥에 닿는 택의 발, 날아내리며 후지의 상통을 차버린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후지가 넘어진다.
기쁨에 일싸안고 함성을 지르는 군중들. ... (중략)
서로 달려와 뜨겁게 상봉하는 날파람패들 (중략) ... 이때 울리는 총성.
날파람패들 향해 겨눈 왜병들의 총구.⁴⁹⁾

위에 나타나듯이, 〈평양 날파람〉은 조선의 택건이 뛰어난 무술이라는

46) 철학연구소 편,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사회과학출판사, 2000), 41쪽.

47) 외국문출판사 편, 『금수강산』제11호(외국문출판사, 2006), 48쪽.

48) 근로단체출판사 편, 『조선녀성』제12호(근로단체출판사, 2006), 6-7쪽.

49) 김종석·조세혁, 앞의 책(2006), 79쪽.

것을 주인공 ‘택’의 무술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출가는 ‘택’의 뛰어난 무술과 조선민족의 슬기로움은 결국 총대를 틀어쥐지 못한 탓에 제국주의에 나라를 잃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관객에게 보임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제시한 선군정치 위대성을 선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영화는 관객에게 아무리 훌륭한 무술도 총대와 결합되지 못하면 민족의 뉘를 지키지 못하고 자신의 운명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총대진리⁵⁰⁾를 가르쳐주고 있다.

〈평양 날과람〉에서 강조하는 총대와 선군혁명은 북한에서 “총대로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로 이끌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것은 선군혁명의 기초, 출발점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다”⁵¹⁾라고 지적하면서 선군사상의 시원을 김일성이 아버지 김형직으로부터 물려받은 ‘두 자루의 권총’이라고 규정⁵²⁾하고 있다. 이처럼 선군사상의 시원을 김형직으로 규정한 것은 선군정치의 정통성을 만경대혁명일가로 수렴하여 김정일의 정권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북한의 의도인 것이다.

김일성은 혁명이자 총대이고 군대이자 민족의 운명이라는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1930년 6월 30일 카툰회의에서 무장투쟁 노선을 제기함에 따라 선군사상이 창시되었다.⁵³⁾

다시 말하자면,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일성과 김정일에게로 귀결시키고 있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북한의 의도는 〈평양 날과람〉의 마지막 장면인 평양 택견꾼들이 일제의 총에 의해 처참히 죽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연출가는 당시 평양 택견꾼들이 일본의 총구에 의해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형상화함으로써 당시 힘은 강했으나 김일성과 김정일이 개척한 총대가 없었기 때문에 일제로부터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관객으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즉 연출가는 〈평양 날과람〉의 마지막 장면을 통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이 창시한 총대

50) 문학예술출판사 편, 『조선예술』 제12호 (문학예술출판사, 2006), 15쪽.

51) 근로단체출판사 편, 앞의 책(2006), 6쪽.

52) 서유석, 앞의 논문(2006), 215-216쪽.

53) 근로단체출판사 편, 앞의 책(2006), 6쪽.

54) 북한은 선군정치를 “김일성에 의해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이 창시된 때로부터 총대로 개척되고 전진하는 혁명의 새 시대가 열리고 선군혁명의 뿌리가 내리지게 되었던 것이고 김일성이 김정일에게 물려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직책은 대를 이어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위의 책, 6-7쪽.

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인민대중이 자기의 자주성을 실현하자면 반드시 정의의 총대를 쥐어야 한다. 총대는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에서 가장 위력한 수단이다. 총대철학에는 바로 자주적인민에게 있어서 총대는 생명과 같이 귀중하다는 진리가 집대성되어있다. ... 총대철학의 진리성에 기초하여 총대를 확고히 앞세우고 혁명을 전진시켜나가게 하는데 선군정치 불패의 위력이 있다. (중략) ... 총대는 곧 군대를 의미한다.⁵⁵⁾

북한의 총대중시는 2000년 신년공동사설⁵⁶⁾에서 제시한 3대 기둥 이후, 선군혁명의 기초이며 출발점인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북한은 선군혁명의 기초, 출발점을 마련하여야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는 혁명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 총대로 혁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⁵⁷⁾면서 총대 중시 풍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은 제국주의를 비롯한 반혁명세력과의 투쟁을 동반한다면서 군사는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좌우하는 관건적문제로 나선다”⁵⁸⁾고 언급하면서 군의 역할을 높이고 있다. 즉 이는 북한 스스로 제국주의와 대항할만한 무력 없이는 혁명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자주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따라서 북한은 <평양 날파람>에서 평양 날파람꾼의 영웅적인 모습을 형상화 하지만 ‘총대’가 없었기에 제국주의로부터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을 형상화함으로써 ‘총대’의 중요성을 관객에게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3. 강성대국건설의 길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사상사업을 모든 사업에 앞세워 나가야 한다”⁵⁹⁾고

55) 김정일, 앞의 책(1993), 144-154쪽.

56) 북한은 2000년 신년공동사설에서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은 강성대국의 3대기둥이다.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주체의 사회주의강성대국이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2000년 1월 1일자.

57) 근로단체출판사 편, 앞의 책(2006), 6쪽.

58) 위의 책, 6쪽.

59)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조선로동당 출판사, 1995), 2쪽.

언급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구는 사상중시노선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상중시노선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영화를 적극 활용⁶⁰⁾하고 있는 것이며 〈평양 날파람〉 역시 사상중시노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제작된 것이다.

선군시대 문학작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열한 투쟁과정에 발현되는 북한주민의 반제혁명정신에 대한 생동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적들과 싸우는 영웅적 인민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다는 진리를 예술적으로 뚜렷하게 확증하여야 한다⁶¹⁾”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적 측면을 강조⁶²⁾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 〈평양 날파람〉은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영화에 담고 있⁶³⁾는 것이다.

선군혁명문학에는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을 신념으로, 신조로 삼고 살며 투쟁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첨예한 극적정황속에서 그려진다. 이 문학은 사회주의현실을 그리거나 사람들의 평화로운 생활을 묘사하는 경우에도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관점과 입장에서 예술적형상이 창조된다. (중략) ... 선군혁명문학은 민족적형식을 적극 살리고 선군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미감에 맞는 새로운 형상수법들을 탐구해냄으로써 예술성을 높이는데서도 새로운 성과를 이룩하였다.⁶⁴⁾

실제 민주조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역사 주제의 영화인 〈평양 날파람〉을 통해

60) 영화는 감화력과 생활력이 큰 사상교양 수단이다. 《로동신문》, 2006년 8월 19일자.

61)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총대와 문학』(사회과학출판사, 2004), 171쪽.

62) 영화를 통한 사상교양이 매우 중요하다. (중략) ... 최근에도 우리 당은 새 세기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영화를 통한 교양사업을 새롭고 참신하게 진공적으로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고 있다. 예술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와 〈평양 날파람〉과 같이 감화력이 큰 선군시대 영화예술의 본보기작품들을 창작완성하도록 하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있게 벌려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당사상사업에서 기성의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사상사업을 대중의 사상과 의지, 감정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로동신문》, 2006년 9월 11일자.

63) “이놈아, 우리가 살자고 예까지 온줄 아느냐? ... (중략) 우린 죽어 이땅에 한을 남기고 저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그 한을 반드시 풀어줄게다”라는 영화 속 대사에 나타나듯이, 북한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을 지속적으로 북한주민에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사회정치적생명체론을 북한주민에게 강조함으로써 수령을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김종석·조세혁, 앞의 책(2006), 79쪽.

64)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앞의 책(2004), 30쪽.

인민이 모든 면에서 영웅조선의 기상을 높이 떨치고 있는 때에 북한의 자랑인 태권도의 모국이 조선이고 태권도의 고향이 평양이라는 것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하게 증명한 영화가 나온 것에 대해 치하했다”⁶⁵⁾고 보도하면서 〈평양 날파람〉에 대해 상징적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평양 날파람〉을 조선중앙TV를 통한 방영을 함과 동시에 영화 실효모임을 실시하면서 사상교양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먼저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에서는 영화실효모임을 통해 일제의 침략적 본성과 악랄성을 규탄하였고 영화를 통하여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⁶⁶⁾ 국가과학원 물리학연구소에서는 〈평양 날파람〉 실효모임 이후 과학연구사업에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강인한 의지로 이겨내면서 조국과 민족을 빛내는데 이바지하는 가치 있는 연구성과를 이룩하기 위하여 탐구의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이어가고 있다⁶⁷⁾고 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영화 실효모임을 통하여 북한주민들이 사상적으로 배운 내용을 실제 생활에서 효력을 발휘하도록 도모함으로써 영화 속 구현된 당의 의도인 ‘총대’와 ‘민족’을 세뇌시키고 있다. 따라서 〈평양 날파람〉 영화실효모임은 북한 사회주의 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북한주민들에게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2012년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북한주민의 투쟁을 고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평양 날파람〉은 강성대국건설을 위해 선군혁명총진군은 누구나 맡은 위치에서 자기 임무를 군인과 같이 강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로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맡은 임무와 분야 그리고 직무가 각기 다르지만 모든 전선에서 ‘총대정신’을 바탕으로 비약의 폭풍이 일어나야 강성대국 건설시대로 갈수 있다는 것을 북한 당국은 〈평양 날파람〉을 통해 보이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IV. 결론

2006년 북한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평양 날파람〉은 북한에서 600만 명 이상 관람하였으며 제10회 평양국제영화제에서 선보이기도

65) 《민주조선》, 2006년 8월 13일자.

66) 《로동신문》, 2006년 8월 19일자.

67) 《민주조선》, 2006년 9월 5일자.

하였다. 북한 내외부적으로 반향을 불러온 <평양 날파람>은 형식적으로 세련된 연출과 새로운 촬영기법으로 북한영화의 변화를 이끌었고 내용적으로는 당의 정책과 요구인 ‘총대 기둥’과 ‘민족’이 잘 반영된 영화인 것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평양 날파람>은 기존 북한영화들처럼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제작되었기에 <평양 날파람>을 통하여 북한영화 변화를 언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시대의 요구에 맞게 항상 창작방법을 변화시키는 북한영화의 특성을 감안하면 연출기법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선전선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관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평양 날파람>은 기존 단조로웠던 북한영화들과 다를 바 없는 선전선동을 위해 제작된 영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미 북한은 일제 식민지 경험을 한 바 있고 <평양 날파람>을 통해서 연출가가 형상하였듯이, ‘무에도보통지’가 있을지라도 국력이 약하면 제국주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영화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 시기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총대’와 ‘군사중시’인 것이고 북한은 이를 <평양 날파람>의 종자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절망적인 삶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사는 북한주민들에게 강성대국 건설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적 메시지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이라 하겠다.

2006년 북한은 한시적으로 배급제를 부활시켰지만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이완을 막는 차원에서 가장 효과적인 영화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북한이 방송 또는 영화, 음악 등을 통하여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를 강조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은 악조건에서도 묵묵히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북한의 극심한 경제상황에서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함으로써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기초를 다지려는 당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⁶⁸⁾ 따라서 향후 제작되는 북한영화는 <평양 날파람>과 같이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시키고 북한주민을 선전선동하기 위한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68) 한승호, 「북한 '당 창건 64돌 경축공연'의 특징 연구」, 『북한학연구』 제5권 2호(2009), 146-162쪽.

참 고 문 헌

<남한문헌>

- 강성윤, 「6.15남북공동선언 제2항의 함의」, 『북한연구학회보』 제8권 2호, 2004, 33-51쪽.
- 서유석, 「북한 회상기의 영웅서사 상징에 관한 연구」, 『동양정치사상사』 제6권 2호, 2007, 215-216쪽.
- 이명자, 「김정일시기 영화 창작방법에서의 수동적 혁명: 가족영화의 세대 갈등을 중심으로」, 『영화연구』18호, 2002, 195-196쪽.
- 한승호, 「선군정치를 통한 군부입지 강화와 변함없는 당·군관계」, 『북한』 8월호, 2008, 105-112쪽.
- _____, 「북한영화 <한 녀학생의 일기> 연구」, 『영화』 제2권 2호, 2009, 204-206쪽.
- _____, 「북한 '당 창건 64돌 경축공연'의 특징 연구」, 『북한학연구』 제5권 2호, 2009, 146-162쪽.

<북한문헌>

- 김정일, 『김정일선집』2 (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93).
-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것은 사회주의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5).
- 김종석·조세혁, 『조선예술』 제1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 김현환, 『김정일장군 조선민족제일주의론』(평양: 평양출판사, 2003).
- 리호윤, 『조선예술』 제1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
- 리현순, 『사회주의영화예술건설』(평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8).
- 백과사전출판사 편, 『조선대백과사전』19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 사회과학원 주체문학연구소 편, 『총대와 문학』(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4).
- 심영택, 『조선예술』(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 서제경, 『주체의 문학창작』(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
- 조선녀성 편, 『조선녀성』 제12호 (평양: 근로단체출판사, 2006).
- 조선로동당출판사 편, 『우리당의 선군정치』(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6).
- 문학예술출판사 편, 『조선예술』 제12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6).
- 조성박, 『김정일 민족관』(평양: 평양출판사, 1999).
- 천리마 편, 『천리마』 제8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9).
- 철학연구소 편,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00).
- 최용석, 『조선예술』 제6호 (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7).
- 한송남, 『연출가의 영화적 재구성』(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08).
- 《로동신문》, 《조선신보》, 《민주조선》.

국 문 요 약

2006년 8월 북한에서 개봉된 <평양 날파람>은 관객 600만 명이 볼 정도로 돌풍을 일으킨 영화이다. 이 영화가 북한 관객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기존 북한 액션영화에서 보였던 형식과 틀을 탈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 날파람>은 기존 북한영화들처럼 선전선동을 위한 수단으로 제작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관객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평양 날파람>은 기존 단조로웠던 북한영화들과 다를 바 없는 선전선동을 위해 제작된 영화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북한에서 선군시대 대표영화라고 칭하고 있는 <평양 날파람>을 통하여 북한영화의 변화유무를 집중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평양 날파람>에 나타난 주인공 ‘택’과 ‘건’의 애국정신과 북한에서 강조하는 조선민족 역사 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투고일 2009. 12. 13.

수정일 2010. 2. 22.

게재 확정일 2010. 3. 5.

주제어(keyword) 북한영화(North Korean film), 김정일(Kim Jung Il), 총대(Chong-Dae (represent)), 선군정치(Army-First politic), 평양 날파람(Pyongyang Nalpharam), 조선민족제일주의(Chosun Minjok Che'il Ideology)